

이·통장이 경험한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

김정유^{1,2}

¹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²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Narrative Analysis for Suicide Prevention Activities Experienced by Chiefs of tong/ri

Jung-Yoo Kim^{1,2}

¹Team Leader, Gangwon Provincia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²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자살예방활동에 참여 중인 이·통장의 경험과 변화 과정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지역사회 내에서 2년 이상 자살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3명의 이·통장으로 하였으며, 각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이·통장의 자살예방활동 참여 시작, 경험, 변화와 성장 순으로 구성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통장 활동을 하면서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가벼운 시작'을 하였으며, 자살예방이라는 어려운 문제에서 나름 각자의 방법을 터득하여 활동을 유지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기'를 거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통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자살예방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으며, 그 활동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자살예방, 이장·통장, 게이트키퍼, 내러티브,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at chiefs of tong/ri' experiences in suicide prevention activities are and what their changes are. The study participants are three chiefs of tong/ri who have participated in suicide prevention activities for more than two years in the community. In order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respective experiences, used a qualitative method of narrative study. Chiefs of tong/ri' experiences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suicide prevention activities consisted of start, experience, change and growth. The meaning is as follows. They did a "light start" with the idea that they could do it easily in their original activities. "Escape from the burden" of learning and maintaining each of own ways in the difficult problem of suicide prevention, "Responsibility as a chief"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suicide prevention activities. They were able to find "change of their own" because of the activity naturally.

Key Words : Suicide Prevention, Chiefs of tong/ri, Gatekeeper, Narrative, Convergence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자살은 이미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2011년 사상 최대로 15,906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이

후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해마다 13,000명 수준으로 자살을 하고 있다[1].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 수치이기도 하다[2].

자살의 유일한 해결방법은 예방이다. 자살예방을 위해

*Corresponding Author : Jung-Yoo Kim(corea-yes@nate.com)

Received March 6, 2020

Accepted May 20, 2020

Revised April 27, 2020

Published May 28, 2020

중앙 정부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 중이다[3]. 또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자체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설치해 자살 예방사업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4,5].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자살예방사업은 교육이나 캠페인과 같은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6]. 자살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사업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발굴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의 내용에는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7]. 세부적으로는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를 양성하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이·통장과 같은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활용한 자살고위험군 발굴이 그 내용의 핵심이다. 이 중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이·통장이다. 이·통장은 지역사회에 밝고 주민에게 밀착되어 있어 지역사회 자살예방활동에는 매우 적합한 조직이다. 또한 이·통장은 지역 사회 리더로서 사회적 지지망이 약한 지역 주민의 지지체계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6].

서울 노원구, 광주광역시 등에서 독거노인, 자살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활동과 인식개선 캠페인에 이·통장을 활용하기도 하였다[8,9]. 이·통장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이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원도 자살예방 중점사업으로 이·통장 생명지킴이 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10]. 당시 강원도의 자살률은 다년간 전국 1, 2위에 위치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1]. 강원도에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을 모색해야 했다. 그 사업이 바로 이·통장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이었던 것이다. 이·통장 생명지킴이 양성사업은 강원도 전체 이·통장 4,200여명을 지역 내 자살고위험 주민을 관련기관에 의뢰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양성하는 사업이다[6]. 강원도는 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 자살률이 타 광역지자체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국 자살률 최 상위권에서 다소 떨어진 3, 4위권을 유지하고 있다[1]. 이와 같은 강원도의 자살예방사업은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인 이·통장을 활용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이·통장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기는 하였지만, 단순히 수치상으로 자살률이 감소하였다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국내 이·통장을 활용한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연구에 따

르면, 이·통장으로서의 사명감, 활동에 대한 혜택과 보상, 자살예방이라는 의미와 취지, 정책이라는 요인들이 자살 예방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 연구가 양적연구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활동 중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자살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이·통장 각각의 개별적인 경험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경험이야말로 자살예방활동의 진정한 의미이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통장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이 아직 초기이고 활성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매우 미비하며, 특히 심층적 인터뷰를 통한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자살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통장의 경험에 관한 연구는 자살예방에 있어서 그 중요성 점차 강조되고 있는 풀뿌리 조직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정보와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선 자살예방활동에 참여 중인 이·통장의 경험을 알아보고 그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이·통장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자살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의 이·통장의 변화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내러티브 탐구

연구자는 이·통장의 자살예방활동 참여 경험을 살펴보고, 자살예방활동 경험을 통한 자신의 변화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중에서도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경험 이야기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11]. 즉,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삶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개인의 경험들이 구성되고 실행되는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춘다[12]. 이에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구가 현장의 실천경험을 경험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드러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현재 지역사회 정신건강 현장에 종사하면서 기본적인 자살예방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또 질적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대학원 박사과정 중 질적 연구방법론 수업을 두 학기를 수료하였으며 꾸준히 질적 연구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A, B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위험군으로 관리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등 자살예방활동을 하는 이·통장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A, B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의 소개를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전해줄 수 있는 최종 3명의 이·통장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생명과학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ame	gender	age	Career as a chief tong/ri	Suicide Prevention Experience
Kim	female	63	4 year	3 year
Lee	female	58	2 year	2 year
Cho	male	50	7 year	2 year

'Kim'은 63세 여성으로,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거주지에서 19년째 거주 중이며 반장으로 3년 정도 활동하였고 통장으로 활동한지는 4년이 되었다. 자살예방활동은 만3년 정도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한 주민 20명을 관리하고 있다.

'Lee'는 58세 여성으로, 일반 주택 밀집지역 내에서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거주지에서 10년째 거주 중이며 통장 활동은 2년 정도 되었다. 자살예방활동은 통장활동과 동시에 시작하여 만2년 정도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한 주민 5명을 관리하고 있다.

'Cho'는 50세 남성으로, 농촌지역 내에서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거주지에서 45년째 거주 중이며 이장 활동은 7년째 하고 있다. 자살예방활동은 만2년 정도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한 주민 5명을 관리하고 있다.

2.3 수행과정

본 연구의 과정은 Clandinin과 Connelley이 제안한 현장으로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텍스트 구성하기의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고자 하였다[13]. 이에 본 연구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와 2시간 전후로 심층인터뷰 각 2회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각 지역 자살예방활동 모임에 참여하여 개별적으로 1시간 정도로 3회 이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전화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3. 자살예방활동 참여 경험 이야기

3.1 'Kim'의 이야기

3.1.1 시작 - '손에 뭐라도 들고 가야 만나주지'

'Kim'은 통장으로 활동하면서 우연히 동사무소에서 개최된 자살예방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교육에서 통장이 자살예방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에 대한 소정의 지원이 있다고 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정방문할 때 파스 같은 것이나 기념품도 주고 활동에 따른 활동지원비도 준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했지요. 통장이라도 가정방문할 때 그냥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만나 주거나 하지 아니면 문도 안 열어줘요. 옛날에는 통장이라고 하면 다들 문도 열어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와는 달리 이웃 간의 왕래가 부족한 현실에서 통장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이에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지원이 통장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3.1.2 자살예방활동 경험

가. '특별할 것 없어요.'

'Kim'이 하는 자살예방활동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한 명단의 주민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방문해 해당 주민의 환경적, 심리적 상황을 살피고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려주는 것이 주 활동이다.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준 명단 내 주민 집에 정기적으로 가서 잘 지내고 있는지 어려운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전부예요...담당하는 주민은 20명 정도 되는데 날마다 가지는 않아요. 특별히 신경 쓰는 7-8명 정도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 보거나 전화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2-3주에 한번 정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죠.”

나. ‘내가 왜 시작했을까’

‘Kim’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음주문제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임대아파트 단지이다. 이러한 주민의 특성으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집에 찾아가면 술을 먹고 있는 남성들은 뭘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그리고 수급자들이 많아서 통장이 왔다고 하면 괜히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불만을 저에게 털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노인들은 누군 파스주고 누군 안주냐며 따지는 분도 있어서 힘들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살에 대해 묻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담당 지역에서 자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당신이 뭘든 찾아와서 자살, 정신 그런 걸 물어보나, 이전에는 오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냐며 화내고... 자존심도 상했어요....그래서 왜 시작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막심했어요.”

다. ‘이제는 좀 수월해요.’

‘Kim’은 원래의 통장의 역할과 자살예방활동과의 공통 접점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보다 수월한 자살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울, 자살 이런 거 때문에 왔다고 하면 싫어해서 일단 내가 통장이니까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 어려운 거 조사하러 나왔다고 하면서 집안을 한번 둘러보면서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하죠. 낮에 문을 안 열어주면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방문하기도 하구요. 통장업무를 하면서 자살예방활동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 자살예방활동을 시작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한 방

법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단계를 넘어서는 것,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문이 있었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욕도 한두 번 먹다보니 자존심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단계를 넘기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찾아갔는데 그럴 때마다 젊은 알코올 중독 남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혹시 나중에 해코지하지 않을까 겁도 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선 잘 만나주고 조금이라도 친한 분들부터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편해졌어요.”

‘Kim’은 때로 주민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담당자와의 만남의 장소로 자신의 집을 임시 상담소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많이 힘들어 상담을 받고 싶는데 자기네 집을 보여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만나자고 했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복지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는 우리 집에 불려서 상담을 했어요. 통장네 집이니까 다른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Kim’은 자살예방활동을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하는데 활동지원비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방문할 때 얼굴보고 손을 먼저 봐요. 빵이라도 하나 사 들고 가야 만나줘요. 그냥 가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그래서 활동지원비가 매우 요긴해요. 복지관에서 만나면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라도 뽑아주면 친해질 수 있잖아요.”

3.1.3 변화와 성장

가. 지속하는 이유 - ‘죽고 사는 문제’

통장의 업무와 자살예방활동을 병행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Kim’이 자살예방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책임감이었다.

“활동지원비를 받고 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 단지 내에서 자살로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대충해도 되겠지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서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단할 수도 없어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빼기가 쉽지 않아요.”

나. '나랏일 하는 엄마'

'Kim'은 자살예방활동을 한 후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게 되었고, 주민과 더 친숙하게 되었다. 또, 자살예방활동의 우수함에 대한 주변의 인정을 통해 성장해 가고 있었다.

“노인들은 통장이 자길 더 신경써준다고 생각해서 고맙다며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시기도 해요. 요즘 저 같은 통장이 없다면서 칭찬해주시고, 먼저 인사해주는 분도 있고, 오는 날을 기다린다는 분도 계세요....부끄럽지만 작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도 주더라고요. 그걸 우리 동장님이 아서가지고 저를 상 받은 통장님이라고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죠....특히 우리 아들이 이전에는 저보고 통장 그런 거 왜 하나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상을 거실에 세워놨더니 그 이후부터는 우리 엄마 나랏일 하시느라 공사가 다망하시네 하면서 인정해주는 걸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힘도 더 나고요.”

3.2 'Lee'의 이야기

3.2.1 시작 - '다른 통장님이 상을 받더라고요.'

'Lee'는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지원비와 다른 통장의 우수활동에 대한 포상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통장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

“다른 통장님이 이거 하면서 활동지원비도 지원받은 걸로 잘 활용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상도 받더라고요. 그걸 보고 관심이 생겼죠.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옆 통장님이 해보자고 소개해줘서 시작하게 됐죠.”

3.2.2 자살예방활동 경험

가. 나의 일, 자살예방활동 - '놀면 뭐해요.'

'Lee'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통장으로서 주민과의 왕래가 쉽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한 사례관리 대상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들로 오히려 자살예방활동은 주민들과 친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문도 안 열어주고 인사도 잘 안하고 지내죠. 그런데 자살예방활동을 하면서 노인들을 찾아가서 파스 같은 작은 물품도 가져다 주면서 친해졌어요. 통장이라고 그동안 크게 하는 일도 없었는데 노인들에게 신경 써 주고 하니 통장 일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놀면 뭐해요. 이런 거라도 하니 일 하는 것 같고 좋아요.”

나. '좋은 돈, 부담스러운 돈'

'Lee'는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활동지원비의 양면적 특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별한 소득이 없던 'Lee'에게 수입원로서의 활동지원비와 돈을 받고 자살예방활동을 한다는 것을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알았을 때의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그것이다.

“솔직히 이거 돈 때문에 하는 이유도 커요. 요긴하게 쓸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돈 받고 하는 거 그 분들이 알게 되면 실망이 클 것 같기도 해요. 돈 때문에 관심이 저준 준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게 제일 큰 부담이고 신경이 많이 쓰여요.”

다. 편해지기 - '다 거기서 거기'

'Lee'는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해 다른 통장들과 소통을 많이 하였다.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서로 공유하면서 'Lee'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다소 편해질 수 있었다.

“방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이지만, 자살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늘 걱정이 되고 부담스럽죠. 그런데 다른 통장님들 만나면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로 위로도 해주고 자신들 이야기도 해주고 해서 좋아요. 어떤 통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이 가장 편해서 힘들 때는 일부러 그 말을 더 생각해요.”

3.2.3 변화와 성장

가. 지속하는 이유 - '월급쟁이'

자살예방활동에서 오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Lee'가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활동지원비가 자신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면에 더 주목하기 때문이었다.

“그만두고 싶기도 하죠. 아무래도 돈을 받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죠. 그래도 활동지원비가 월급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신랑이 월급쟁이라면서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달라고 하면 그거 계산하는 기분은 정말 좋아요. 내가 집에서 밥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직업이 있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요.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 맛에 계속해요.”

나. '지금의 그들, 나의 미래'

'Lee'는 자살예방활동을 하면서 만나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그 과

정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곧 자살예방이라는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신조가 생겼어요. 요즘 외로워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굶어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노인들을 만나면서 다들 외로웠구나, 사람이 그리웠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저 나이가 되면, 저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내 미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자주 찾아가려고 하고 저도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더 만나려고 해요. 그게 자살예방이지 뭐겠어요.”

3.3 'Cho'의 이야기

3.3.1 시작 - '이장이니까'

'Cho'는 이장회의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게 사업이든 그냥 누구의 부탁이든 마을의 이장을 맡았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네 가족이 죽어도 이장이 할 일이 있는데 주민이 죽는다는데 그걸 그냥 나둘 수는 없지요.”

'Cho'는 자살예방활동을 이장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3.2 자살예방활동 경험

가. 늘 하던 것처럼

'Cho'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한 명단의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단지 명단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그 관심도가 조금 높았을 뿐이다.

“이장이면 마을을 돌아다닐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묻고 하죠. 그런 거 하는데 순서를 가리고 하나요? 늘 하던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명단에 있는 주민은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는 건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나. '적어내는 게 많아요.'

'Cho'는 자살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주민을 만나고 상황을 파악하는 주 업무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사례방문일지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주민들 안부 묻고 잘 있나 살펴보는 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준 명단의 주민들에 대해서 활동한 일지 작성을 부탁하는 것, 그게 일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큰 변화가 없거든요. 매번 같은 내용을 써낸다고 뭐라고 하고, 자세히 써달라고 하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은 회의 때 적어내는 게 많다고 건의하기도 했어요.”

다. 쉽게 쉽게 - '혼자서는 못해요.'

'Cho'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자신이 혼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아닌 다른 주민의 도움으로 자살예방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자살예방활동을 일상적인 활동으로 생각하면서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날마다 가서 확인할 수는 없죠. 내가 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주 간다고 해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을 회의 때나 다른 주민들에게 대신 물어보죠.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은 너무 어렵게 하면 골치만 아프죠. 할 수 있으면 쉽게 쉽게 해야지 오래가요.”

3.3.3 변화와 성장

가. 지속하는 이유 - '이장이니까'

'Cho'는 이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곧 자살예방활동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자살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우려 또한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이유였다.

“자살예방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늘 하던 이장 업무를 하면 그게 자살예방활동인 것이죠. 그리고 어느 이장이 자기네 마을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건 막아야죠. 이장이니까.”

나. '사람이 달라졌어요.'

'Cho'는 자살예방활동이라는 의미로 인해 이전보다 주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민에게 더 다가가고 있는 자신을 알 수 있었다.

“전에도 주민들을 잘 살펴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자살 예방활동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으니까 신경을 더 쓰게 되기는 하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활동을 하고 나서 부터는 주민들이 우리 이장이 전보다 더 많이 물어보고 관심을 더 가져준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4. 자살예방활동 참여 경험의 의미

4.1 가벼운 시작

이·통장들은 자살예방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활동 동참을 위한 설명회부터 시작되었다. 기본적인 이·통장 활동과 병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활동에 참여하였다. 또, 활동지원비가 큰 동기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것이 자살예방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요인이기도 하였다. 비록 자살예방이라는 원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민의 변화에서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의미를 느끼고 있었다.

4.2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살펴야 하는 자살예방활동, 번거로운 절차들, 그 활동을 하면서 받는 활동지원비는 이·통장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특히 활동지원비 수령은 양자택일의 어려움, 즉 딜레마로 표출되었다. 딜레마를 겪는 이유는 현재보다 더 나은 결정을 위함이며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비록 편안하지는 않지만 더 나은 길을 모색하게 하는 과제이며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다[14]. 이·통장들은 활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이·통장으로서의 기본 업무와의 병행, 자존심 버리기, 활동지원비 활용, 동료들과의 활동내용 공유 등 각자 나름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월한 방법을 찾아 효율적인 자살예방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4.3 이·통장으로서의 책임감

이·통장이 자살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책임감이었다. 비록 시작은 다른 의도로 쉽게 시작하였지만,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자살예방활동이 공동체의 리더인 이·통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임을 느끼게 되었다. 이·통장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 성실성 등 리더의 윤리적 행동 특성을 발현한 것이다[15]. 이는 Levinas가 말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에 대한 경외와 책임감을 발견하는 곳에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16].

4.4 나의 변화, 그리고 성장

자살예방활동을 통한 이·통장의 스스로의 변화를 깨닫게 된 것은 주변인으로부터였다. 우수한 자살예방활동으

로 인한 수상, 정기적인 활동지원비 수령과 같은 유형의 보상이 있었다. 또, 자살예방활동을 지속하면서 주민들과의 접촉과 소통이 증가함으로 인해 다른 이·통장과는 다르다는 주민의 긍정적 평가, 가족의 인정과 같은 무형의 보상이 있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진정한 자살예방활동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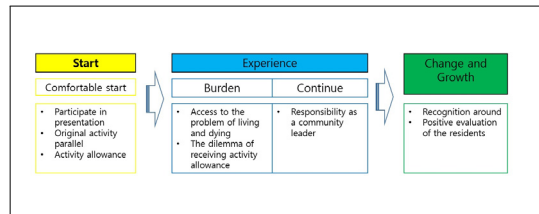


Fig. 1. Meaning of participating in suicide prevention activities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활동에 참여 중인 이·통장을 대상으로 이들의 활동의 시작, 경험, 변화에 대해 내러티브적 접근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통장의 자살예방활동의 시작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설명을 계기였으나, 실제 참여로 이어진 것은 활동지원비, 다른 이·통장의 수상, 이·통장의 책임감이었다. 이 결과는 김정유 등의 연구[6]에서 이·통장의 자살예방활동 참여 동기가 사명감, 활동에 대한 혜택과 보상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하였다.

이들의 본격적인 자살예방활동 수행 후 경험은 어려움과 포기하고 싶음, 자신만의 활동방법 터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자살문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주민을 상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활동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 단순 무급 활동이 아닌 활동지원비 수령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의 방법들을 터득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통장의 자살예방활동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여를 지속할 수 있게 한 요인은 이·통장으로서의 책임감이었다.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책임감은 어려운 활동 환경에서도 주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통장의 자살예방활동 참여로 인한 그들의 변화와 성장의 주된 변화에서 자신의 변화를 발견함과 동시에 가족과 주민이 바라보는 그들의 변화였다. 기존의 이·통장 활동만으로는 차별성이 없었던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자살예방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난 무무형의 보상은 주민에게서의 인정, 가족의 지지 등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현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살예방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이·통장의 자살예방활동 경험을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통장의 자살예방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 참여자들 모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홍보를 통해 자살예방활동을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지역사회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통장의 활동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자살예방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이·통장이 자살예방활동에 참여한 후 책임감 때문에 쉽게 중단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둘째, 이들의 자살예방활동 참여 지속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자살예방 활동은 그 특성상 매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활동 유지를 위한 매력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활동지원비 외에도 우수 활동자에 대한 격려 차원의 포상 등과 같은 지원이 있다. 기존의 업무에 국한되어 지역사회 이·통장으로 인식되는 것에서 벗어나 자살예방을 하는 이·통장의 새롭고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자살예방활동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기적인 힐링 프로그램 개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2차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안한다.

셋째, 이·통장 자살예방활동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연령, 직업, 소득, 주거 및 지역 환경 등 주민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주민들을 상대로 자살예방활동을 경험하고 터득한 이·통장 개개인의 노하우 또한 다양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향후 자살예방활동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자살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이·통장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향후 이·통장의 자살예방활동을 통한 자살위험 주민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살예방활동의 다양한 경험을 듣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단지, 일반 주택 단지, 농촌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통장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는 것과 다소 단편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자살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이·통장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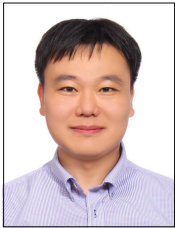
REFERENCES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0). *Annual report on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Korea.
- [2] OECD. (2018). *Suicide rates in Health status Data*.
- [3] National Planning Advisory Committee. (2017). *Moon Jae-in Government's Five-Year Plan*, Korea.
- [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National Statutory Information*, Korea.
-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Mental Health Services Guide*. Korea.
- [6] J. Y. Kim, J. W. Hwang, D. H. Lee & K. U. Lee(2018),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Activity Participation of Community Grassroots Organizational Leaders in Gangwon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4), 223-233. DOI : 10.5392/JKCA.2018.18.04.223
- [7] Related ministries. (2018). *Suicide Prevention National Action Plan*, Korea.
- [8] Nowon-gu office. (2011). "Nowon-gu community leader, gatekeeper to prevent suicide", press release.
- [9] 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2016). "Gwangju City's lowest suicide rate for 3 consecutive years", press release.
- [10] Gangwon Provincial Mental Health Center. (2019). *community leader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Newsletter*, Gangwon, Korea.
- [11] H. M. R. Hong, J. S. Kwon, H. K. Chang, M. Y. Lee & A. Y. Woo. (2008).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Hakjisa Publisher, Seoul, Korea.
- [12] E. J. Choi. (2018). Exploring the Narrative of Child Care Experience of Two Female School Counselo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8), 197-209. DOI : 10.5392/JKCA.2018.18.08.197
- [13] K. H. So, H. S. Kang, D. J. Jo & M. J. Park. (2007).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D. J. Clandinin, F. M. Connelly, Trans.), kyoyookbook Publisher, Gyeonggi,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14] K. M. Kim. (2018). *A Narrative Inquiry for Identity and Dilemma of Christian Counselors*, Doctoral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 [15] S. W. Kang. (2013). Ethical Leadership and CSR Attitude of Employees : Moderating Effect of Supervisor's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2), 447-454.
DOI : 10.5392/JKCA.2013.13.12.447
- [16] D. S. Yoon. (2018). *Levinas' Others Questions and Modern Philosophy*. Moonye Publishing, Seoul, Korea.

김 정 유(Jung-Yoo Kim)

[정회원]



- 2020년 5월 현재 : 숭실대학교 일반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2년 3월 ~ 현재 : 강원도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 팀장
- 관심분야 :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살예방
- E-Mail : corea-yes@nate.com